

## 발간사

금년은 운초 장사훈 선생님의 노력으로 동양음악연구소가 개소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소한 첫 해부터 학술지 『민족음악』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제호를 『민족음악학』으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동양음악연구소의 명칭에 걸맞은 『동양음악』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이제 지령 40집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불편하게 운영되었던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학술지 수록논문의 서비스와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인터넷 기반 환경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동양음악연구소의 정기 학술회의는 <한국음악의 시도>라는 주제로 9월 2일 열렸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한국음악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반세기 이상 연주(공연)와 작곡,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진행해왔던 다양한 시도를 정리해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기초발표는 권오성교수님이 맡아 주셨고, 작곡, 교육, 국악관현악, 세계화, 가야금, 거문고 이상 6분야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의 면면이 각 분야의 현장에서 그러한 노력을 담당하였던 분들이었던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연과 함께 진행된 발표는 그동안 내용 위주로 진행되었던 학술회의보다 훨씬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발표된 논문 중 5편이 이번 40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음악의 연행 현장에서 체득하였던 내용을 글로 풀어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완성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대만의 북관음악에 쓰이고 있는 공척보와 관련된 논문을 수록하였는데, 공척보가 실제 음악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대만의 양상은 한국 고악보의 재현(복원)에 대한 생각을 유연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근래 한국에 유학

은 외국의 음악 전공자들이 자국의 음악을 한국에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음악 학자와 학생들이 동양 여러 나라의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국음악 관련 최초의 학위 논문인 계정식 박사의 논문 번역본 일부를 수록하였습니다. 계정식의 논문은 1930년대의 한국음악에 대한 인식과 연구 배경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정식 박사의 학위논문을 제공해주신 권오성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고를 투고해주신 8분(김희선, 쉬운폐, 안현정, 윤병천, 윤영해, 이상규, 이지영, 허윤정)과 번역을 맡아주신 박균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연구소를 이끌어 주신 전임 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소를 위해 애써 주었던 연구원과 조교들(지금은 중견 학자로 활동하고 있는)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장  
김우진